

지역 매아리

고창군,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고창군은 최근 고창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주제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화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특히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민신고제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모든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모양성보존회 제주시 모양성제 홍보

고창군과 사)고창모양성보존회가 최근 제주도를 찾아 '제46회 고창모양성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 활동에는 고창모양성보존회 회원, 경제살리기여성회,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노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강강술래를 재연하며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과 마흔여섯 번째를 맞은 모양성제를 알렸다.

또 중문관광단지 등에서도 고창모양성제 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고창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며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자연석 성곽인 고창읍성(모양성)은 단종 1년 호남과 제주도민이 힘을 합쳐 쌓았다.

고창모양성제는 4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돼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고창읍성(모양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고창모양성보존회 관계자는 "고창모양성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축제를 알리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힘쓰겠다"며 "제46회 고창모양성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모양성제 기간에는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도 함께 열리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막바지 폭염 대응 '총력'

정읍시,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폭염 TF팀 구성·그늘막 설치 등

정읍시가 막바지 폭염과 열대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폭염 대응 시범 활동의 일환으로 정읍시자율방재단과 함께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안전을 꾀하는 동시에 무더위 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읍면동의 무더위 쉼터 중 지역별로 접근이 쉽고 이용이 많은 대상을 수요조사한 결과 총 12개소를 시범 지정했다.

시는 만65세 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홍보 활동을 벌였다.

시는 8월 말까지 순회하면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에서는 어르신 노래 교실과 네일아트,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수지침 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폭염 관련 홍보 물품 배부와 폭염 예방 활동 안전교육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시는 관련 부서 간 폭염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기술센터와 보건소는 농업시설과 가축시설, 어류시설, 보건 취약계층 등을 방문해 인명안전과 농축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시는 주요지역 그늘막 설치와

주요 승강장 열음 비치, 폭염 저감 시설(에어커튼 등) 설치, 읍면동 주요 도로 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경보 시 재난문자와 전광판 송출 홍보, 마을 재해음성 통보 시스템 운영(258개소)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에도 적극 움직이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연일 35도 내외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시민이 폭염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슴도치섬 위도상사화길 달빛걷기 축제가 오는 24일 부안군 위도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깊어가는 여름 밤의 낭만에 '흠뻑'

고슴도치섬 위도상사화길 달빛걷기 축제 24일 개최

전 세계 유일의 흰색 상사화인 위도상사화와 함께 하는 제6회 고슴도치섬 위도상사화길 달빛걷기 축제가 오는 24일 부안군 위도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안군 위도면이 주최하고 위도면 기관단체에서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깊어가는 여름 밤의 낭만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는 24일 오후 7시 위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 모여 정수장삼거리와 해변로, 상사화동산, 특설 무대로 이어지는 2km 코스로 진

행된다. 특설무대에서는 색소폰 연주와 뿔뿔기 체조 등 현영의 마당, 지역 예술인 축하공연 등 축하의 마당, 위도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에는 상사화 개화기간에 맞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개회시기를 유동적으로 정했으며 부안군 SNS 축제 서포터즈 등 홍보 다변화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위도상사화를 품은

사진 공모전과 위도상사화길 주변 조망경관 설치, 위도상사화·위도파넬놀이 아트트릭 설치 등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선우 위도면장은 "이번 축제는 고슴도치섬 위도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해안길을 걷는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행복한 축제"라며 "축제를 계기로 위도상사화 함께 하는 위도만의 특별한 야행(夜行) 관광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성균관 감사패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공헌 인정

유진섭 정읍시장이 18일 성균관(관장 김영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유 시장은 평소 향교와 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향교와 서원의 발전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특히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유립 모두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김영근 성균관장이 정읍문

화원에서 열린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 학술발표회'장에서 직접 수여했다. 김 성균관장은 "남다른 열정으로 정읍시정을 이끌면서 소중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고 있다"며 "유 시장께 감사패를 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나라 유립을 대표하는 성균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는 경전과 경전소리 교육을 통해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창립했다. 이후 무성서원을 비롯한 서원을 찾아 글 읽기를 실천해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 베리류 포장관리 현장지도 강화

정읍농업기술센터가 복분자와 오디 등 주요 베리류의 수확기가 끝나감에 따라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복분자와 오디 등 베리류의 경우 이듬해 농사 시 안전한 수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재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 과수에 비해 수확기에 많은 열매를 맺어 수확 후 나무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 관리와 병해충 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확 후 세력회복을 위해서는 웃거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웃거름은 과실 생산으로 인해 소비된 나무의 저장양분을 보충해줘 새로운 뿌리의 활동과 이듬해 발생할 가지의 생육을 좋게 해준다.

주의할 점은 과원에 따라 나무의 생육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수세를 살펴가며 시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과다한 비료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정을 통해 시비량을 설정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9월 이후 낙엽기가 가까워졌을 무렵 시비할 경우 늦가을까지 생장해 동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확 후 생육의 지속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분관리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방관리도 필수적이다. 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빗방울로 인해 튀는 흙탕물이나 비바람에 의해 전염이 되는 잣빛곰팡이병과 점무늬병, 탄저병의 발병이 잦다. 때문에 적용약제를 2~3회 정도 살포해 방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방제작업 전에 작물별로 등록 약제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를 통해 재배 농가에게 과원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다"며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농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헤민스님 초청 '더 드림 부안 아카데미' 성료

부안군은 지난 16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헤민스님을 초청, 부안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더 드림 부안 아카데미-헤민스님과 함께 하는 마음치유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부안군청 대강당을 가득 메운 군민의 환호声中에서 시작된 헤민스님 강연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진정으로 꿈꾸는 삶의 방향과 가치, 자신만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싶은 군민들에

게 고요 속의 지혜를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찾는 마음 치유의 시간이 되는 계기와 소중한 행복과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한 군민은 "요즘 너무 힘들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좋은 말씀으로 마음이 힐링이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gift set options.